활살

1958년 (89)

3 -MAY 2 6
Copy ____ 1959

4월호

중국 인민 지원군 철거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주저 앉을 아무 근거도 없다

송 용남 그림

최 영근 그림

조중 인민의 불패의 친선 단결

백 인규 그림

리유가 없다

류 계 환

속담에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 놓는다)는 말이 있는 데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하게 둘러대는 먹장처럼 속심 검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워싱톤의 관리들——월가의 무기 상인들에게 고용된 백악관의 외교관들과 펜타곤의 장군들은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나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는 곤난하다.

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철거할데 대한 조중 량국 정부의 성명들이 거듭 발표된 후 중국 인민 지원군의 철거가 결정되고 미군도 동시에 물러 가라는 내외의 여론이 더욱 비등하자 워싱톤의 관리들은 또 다시 잠'고대 같은 소리를 늘어 놓았다.

《중공군의 철거는 환영하는 바, 》이나 미군은 《유•엔의 결정》에 의하여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하기야 침략을 하면서 《원조》를 한다고 분렬을 일삼으면서 《통일》을 한다고 파괴를 하면서 《건설》을 한다고 지어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도 《경찰 행동》을 했다고 지꺼리는 자들인지라 제 멋대로 혀'바닥을 놀리는 것은 이자들의 상습이다.

또 미군이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그들이 유•엔의 간판을 들고 나오는 것도 어제 오늘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또 한 두 번만도 아니다. 그들은 유•엔과 같은 《권위 있는 기구》가 언제나 자기들을 위한 훌륭한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에 대한 미군의 침략을 《합법화》한 《유•엔의 결정》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채택된 것인가?

그것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리사회의 상임 리사국인 쏘련 대표의 참가도 없이 미국과 그의 추종국가 대표들이 침략의 희생자를 《침략자》로, 침략자를 《침략의 제재자》로 제멋대로 흑백을 전도해서 꾸며 낸 희세의 범죄적 결정이였다.

이 결정은 한 장의 전보문에 의해서 채택되였다. 이 전보는 리 승만 도배가 북조선에 대한 침공을 개시한 후 곧 북조선측이 먼저 공격을개시하였다는 듯이 꾸미여서 보낸것이였다. 그 후에 리 승만의 통고는 전쟁 전부터 면밀하게 작성되여 있었다는것이 들어 났다. 기괴한 것은 남조선에 와 있던 《유•엔 조선 위원단》도 6월 25일에 꼭 같은 내용의 전보를 유•엔 사무 총장에게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전쟁 발발 당시 《유•엔 조선 위원단》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들은 6월 22일 까지 38선에 있었고 6월 25일에는 서울에 있었다. 《유•엔 위원단》은 무엇을 보고 《북조선이 침략》했다고 단정하였던가? 그들은 이 《자료》를 뉴욕에 있는 유•엔 미국 대표 그로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그로스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무쵸로부터 받았다. 무쵸는 또 이것을 리 승만에게서 받았고, 리 승만은 전쟁이 있기 5일 전에 38선을 시찰하고 돌아 온 미 국무 장관 덜레스에게서 받았다.

미국 기자 스톤도 그의 저서 《조선 전쟁 비밀사》에서 미국-당국의 공식 문건에 의거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미국 대표 그로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전에 벌써 안전 보장 리사회에 제출할 초안을 미 국무성과 토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일본 군사 평론가 요시다께 요조도 《미국은 패배했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군은 이미 조선 전쟁을 이르키기 전부터 《유•엔군을 리용할 데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썼다.

그는 허다한 자료로써 이를 실증했는데 그 중 한 가지 례로서 미국 상원 비밀 회의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화가손이 국무성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유•엔 관계 국무 차관 비가손과 교환한 문답을 인용하고 있다.

비가손은 이 문답에서 《조선 전쟁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유•엔의 조선 문제 결의안은 훌륭히 국무성의 손으로 준비되였었다.》고 언명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엔의 결정》은 음모자들에 의하여 사전에 조작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 비법적이며 범죄적인 《결정》으로 조선 전쟁에 참가했고 살육과 파괴를 감행했고 전쟁이 끝난지는 4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도 물러 가려 하지 않고 계속 눌어 붙으려하고 있다. 철면피도 이만하면 극도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미제가 미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은 북조선에 중국 인민 지원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전후에 중국 인민 지원군이 삼차에 걸쳐 19개 사단의 병력을 철거하는 모범을 보인지 오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고집해 온 상투적 구실의 하나였다. 이것으로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소위 《쌍방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 밑에 가리워 보려고 애써 왔다. 그런데 미제의 처음부터 부당한 이러한 언질마저 중국 인민 자원군의 전부를 철거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주동적 조치 앞에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조선으로부터의 중국 인민 지원군이 솔선 철거하게 된 지금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마지막 구실도 없게 되였다.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그 어떤 사소한 구실도 《리유》도 이제 더는 없다. 미군은 물러 가야 하고 또 조속히 물러 가야 한다.

괴상한 게시판

신 흥 순

오늘날 남조선은 자살자가 많은 점에서도 미국을 닮았다. 먹을게 없으니 살아 나갈 도리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 결국 하는 수 없이 독약을 마시고 강물에 몸을 던지고 기차에 뛰여 들고 제 손으로 제 목을 매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못해 오직 죽엄 하나로써 고통스런 생활을 청산하고 만다.

미제의 가혹한 침략 정책 아래 남조선 인민들이 일찌기 겪어 보지 못하던 그야 말로 《4천년 래의 민생고》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장수'법을 연구하여 한편 실시하고 있는 이때 얼마나 삶기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기에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단 말인가?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오직 미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리 승만이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떠버린다. 《절량 농가가 늘어 가는 건 해운(年運)이 나쁜 탓이요, 실업자가 많은 건 시대 조류가 그러한 탓이요, 물'가가 천정 부지로 올라 가는 건 세월이 험난한 탓이요, 병 앓는 사람이 많은 건 하나님께 기도를 안드린 탓이요, 그리고 자살자가 늘어 가는 것은 팔자가 기박한 탓이라》고

팔자가 기박하건 운수가 불길하건 어쨌든 자살자가 많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참혹상을 솔직하게 말하여 주는 영예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쯤은 무식한 리 승만이도 짐작은 하는 터라 그는 내무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미국에서는 인도피나 철도 피차점 같은 데다가 자살하지 말라는 표어들을 써 붙였던데 우리도 각 요소요소에다가 그런 표어들을 내 붙여서 자살을 방지하란 말야!》

이 지시는 즉시 각 경찰서로 시달되여 어느듯 한강 인도교 좌우 량편에도 군데군데 새 게시판이 나 붙었다.

이 게시판에는 《참으라! 이 순간만 참으면 행복이 찾아 온다!》라고 써 있다.

그러나 게시판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일이라 자살자는 여전히 날의 날마다 늘어만 간다. 하루는 한강 다리에서만 4 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다. 그래 내무부 장관은 경찰서장을 불러 그 사연을 물었다.

《그래 오늘 빠져 죽었다는 건 어떠한 놈인가?》

《네 하나는 40세쯤 되는 막벌이'군인뎁쇼, 여섯 명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음 막벌이'군! 그러니까 무식해서 게시판의 표어를 읽을 줄 몰라 죽었구먼!》

《그러구 하나는 저 아현동 토굴에 사는 파부올시다. 이것두 생활난으로…》

《음, 그것두 필경 국문두 모르겠지?》

《모를 리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그전에 회사 사무원 노릇까지 했다던뎁쇼》

《그러구?》

《하나는 또 중학생이 올시다.》

《중학생? 그럼 련애'병이로구먼!》

《아니올시다 유서를 써 놓고 죽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고학하다가 학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난가 봅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 그리구 또 하나는?》

하나는 조사해 본 결과 지방에서 면 서기를 하던 놈인데 감원통에 실직을 당하구서 서울에 와서 취직이나 해 볼가 허구 돌아 다니다가 로자는 떨어지구 일'자리는 없구 하니까 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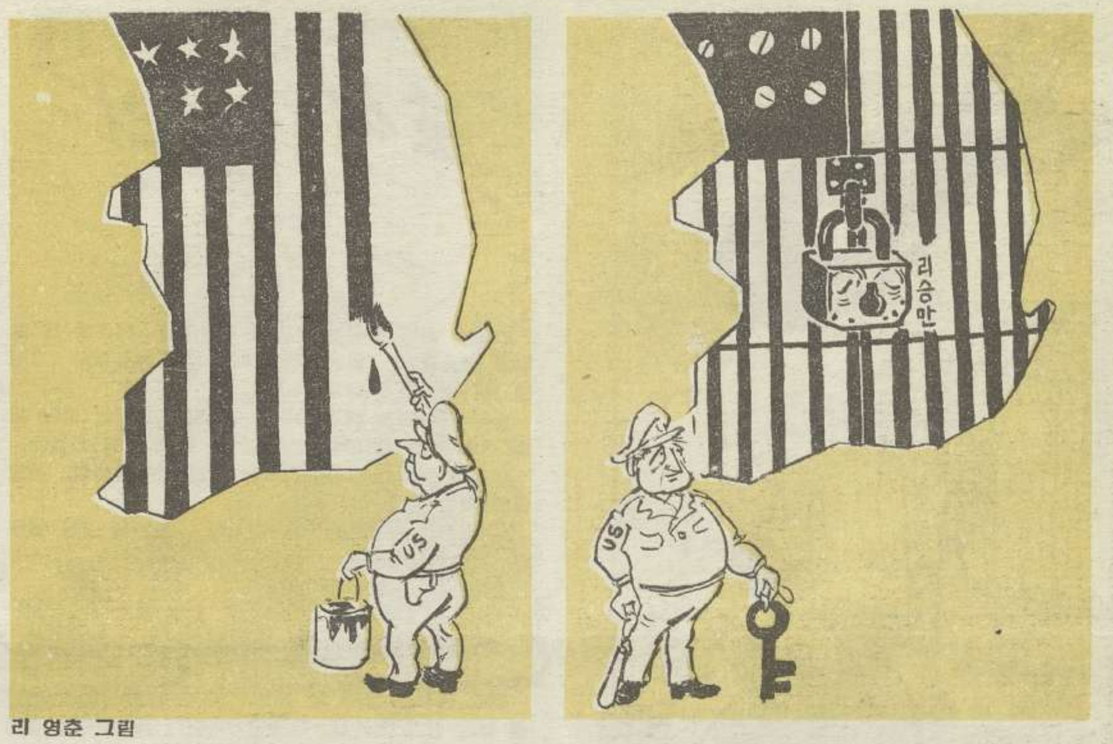
《알고 보면 모두 죽어 마땅한 것들이야! 인심들이 소란해지니 그렇지, 그러니까 언젠 게시판의 표어를 갈아 붙이란 말야!》

《네 어떻게 갈아 붙이깝시요?》

《여기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자살하려거든 경찰서의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말이야!》

《……》

미제 강점의 결과



리 영춘 그림

미제는 조선 분렬의 원흉

조 명식 그림

위험한 곡예

원 광수 그림

도적의 론리

오 흥 택

스미스 헌병 중위는 마지막 투전장을 번졌을 때 절망을 느끼였다. 아침부터 벌려 놓은 투전에서 그만 마지막 딸라까지 잃은 것이다.

밀무역을 하는 허스터의 트렁크에는 듬뿍한 딸라 뭉치 외에 시계, 보석 등 귀중품이 흠뻑 들어 있었다.

이것이 구미가 나서 시작한 투전인데 밑천을 몽땅 털린 것이다.

《허스터씨 한시간만 휴식합시다. 밑천을 구해 올테니 그 동안 머리 좀 쉬우시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미스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

《일곱시에 다시 시작합시다.》하고 또 다짐하였다.

* *

엠피 본부에 돌아 온 스미스 중위는 세 사람의 엠피를 불러 놓고 뭐라고 쑤군덕거리더니 제 손목에 찼던 시계를 벗어 놓았다. 상관 앞에 불리워 온 엠피들도 시계를 벗어 놓았다. 책상 우에 올려 놓여 있는 시계 네 개와 방안에 설치된 라지오를 들고 두놈이 먼저 나갔다. 뒤따라 스미스 중위도 밖으로 나갔다.

* *

얼마 후 종로 거리에 있는 서울 라지오사에 미군 두 명이 나타났다.

《주인 고급 라지오 사시오.》

미군은 주인 앞에 라지오를 내 놓았다.

주인은 망서리였다. 미군 물건을 잘못 샀다가는 화를 당하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지오의 성능이 좋음으로 주인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주인이 라지오를 산지 10 분도 채 못되여 상점 앞에 군용 찦차가 급정거했다.

엠피 표식을 한 두 사람의 미군이 상점에 들어 왔다. 그중 한 사람은 스미스 중위였다.

《주인 상점에 있는 라지오를 좀 검사해야 겠소》

스미스 중위가 채 말도 떼기 전에 한 놈의 엠피는 상점을 뒤지기 시작 했다. 엠피는 주인의 책상 밑에서 방금 산 라지오를 책상 우에 올려 놓고 소리를 질렀다.

《깟뎀. 이 라지오 어데서 났소?》하고는 스미스를 돌아 보며 《어제 밤 도적 맞은 라지오 틀림 없소》하고 보고 했다.

스미스는 경찰을 불러 오라고 엠피에게 명령 했다. 이윽고 경찰과 엠피가 함께 들여 닥쳤다.

스미스는 경찰을 앞에 놓고 호통했다.

《한국 경찰 정신 차리시오. 어제 밤 한국 사람 군용 라지오 훔쳐 갔소. 그 라지오 이 상점에서 발견되였소. 단단히 조사해서 엠피 본부에 보고하시오》

경찰은 거수경례를 붙이고 명령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했다.

스미스 중위는 엠피에게 라지오를 들리우고 유유히 상점을 나섰다.

그 길로 그는 약속된 시계방에 들려 같은 방법으로 시계를 도루 찾았다.

* *

얼마 후 종로 경찰서에는 라지오방 주인과 시계방 주인이 심문을 받고 있었다.

먼저 라지오방 주인이 취조실에 끌리워 갔다.

《라지오의 출처를 대라.》

《네, 바로 라지오를 빼앗기기 10 분 전에 미군 두 사람으로부터 샀습니다.》

《뭣이, 거짓말 말어 조선 사람에게 도적을 마쳤다는데 미군에게서 샀다구, 바른대루 말해.》

《나리, 사실 미군으로부터 샀습니다.》

《불손한 소리를 말어, 미군을 함부로 중상하면 재미 없어. 도적을 잡지 못하면 당신이 재판을 받아야 해, 바른대루 말해라》

가죽채가 윙하고 울더니 라지오방 주인을 후려 갈겼다.

《이자식 네가 도적질 해 왔지.》

《아니 미군에게서 샀습니다.》

《이놈의 자식 사상이 불온해, 미군을 함부로 중상하는 거야》

주인은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실신한 채 유치장에 감금되였다.

시계방 주인도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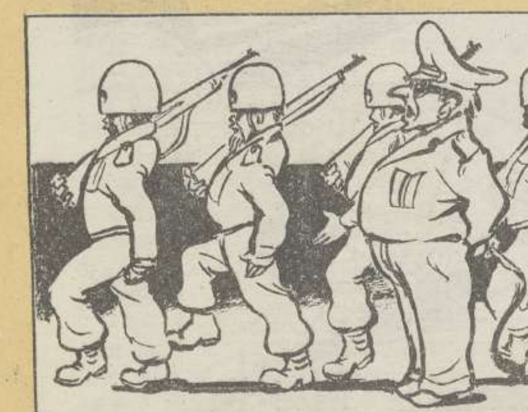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장된 권리

홍 종호 그림

실업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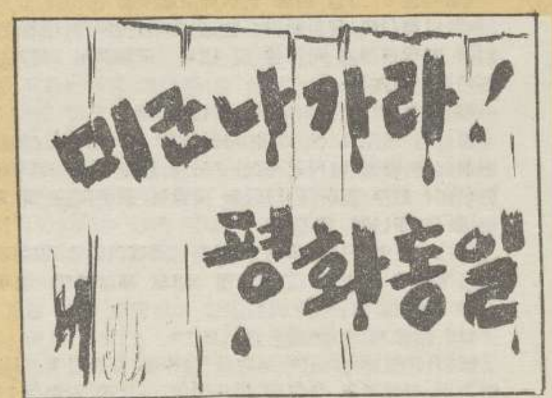
신변 보호 받을 권리

휴식의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의료상 방조를 받을 권리



그러나 진정한 권리를 위하여는 ····

결과는 뻔하다

백 인균 그림

사장님도 실업

박 승히 그림

쪽집개 소식

실업해서 굶고 일하고도 굶고

직업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라는 남조선 360 만의 실업자가 거리에 범람하고 있는 남조선, 5 명의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소문만 듣고도 350 명이나 취직 희망자가 쇄도하는 남조선, 《모집》이란 글'자만 나붙으면 당장에 수십명이 모여 서서 쳐다 보고는 그것이 《기부금 모집》 광고임을 알자 한숨 지으면서 물러서는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단 하나의 리유만으로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360 만 명이나 되는 남조선의 취업 로동자 사무원들의 처지는 그러면 어떠한가? 길게 말할 것 없이 하나의 사실만 들기로 하자.

동양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의례 축소되였을 《내무부》의 발표에 의하더래도 국영 기업소를 비롯한 475 개소의 기업소에서 42 만 2,791 명의 임금 51 억 9 천 326 만 3 천 6 백 21 환을 체불하였다고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수'자는 1 인당 평균 1만 수천 환의 체불로 되며 절대 다수의 로동자 사무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된다.

문턱 높은 학교

동화 통신에 의하면 《문교부》에서는 1월 24일 신학년도에 신입생들로부터의 각종 항목의 납입금을 받을 것을 정식 결정하고 각 학교에 시달 하였다 하는 바, 학교별로 금액상 약간의 차의는 있지만 아래에 그 한 례를 들기로 하자

사립 대학의 경우

입학금이 3 천 환 수업료가 1 학기 분으로 1만 2 백 환 후원회비가 3 만 7 천 환, 후원회 입회금이 1 만 5 천 환 기성비가 1만 환, 시설비가 5천 환 거기에 또 학도 호국단비니 학도 호국단 입회비니 하는 것들을 첨가하도록 시달하였다. 이상은 정식으로 받는 공납금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일반 사회에서 공식 세금보다 이름조차 모를 오가잡탕 세와 부담이 갑절이나 더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조선 학교들에서도 정식 공납금보다 잡부금이 더 많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 근로 인민의 자제는 학교란 생의도 못낼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학비를 벌기 위하여

비교적 부유한 집의 자제가 아니면 학교문 안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공납금과 잡부금은 내라고 야단이고 체납하면 제명 처분을 당하겠고——학생들은 재학 중에 벌써 살아 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를 충분히 《배우게》 되며 갖은 고처를 겪어야 한다. 기왕 숫한 돈을 들여서 다니던 학교니 졸업할 때까지 다니고는 싶고 학교 당국은 가장 악착한 채귀의 모습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고 그만 호랑의 꼬리를 잡은 듯이 놓을 수도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학생들의 처지다. 그래서 소위 아르바이트란 류행어로 불리우는 학생들의 각종 《직업》이 나타나는 데 구두 닦기 신문 팔기 등은 가장 헐한 편이다. 동양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괴뢰 《문교부》까지도 《최근 경제 사정이 핍박함에 따라 근로 학생 (고학생)의 수효가 격증하여 혈액 은행에 피를 팔아 학자(학비)를 마련하려고도 하며 유흥 접객업에 종사하면서까지 학자를 버는 일이 있어서 학생 풍기가 물란해질 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악의 온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흥가에서 웃음을 팔아 가며 학비를 벌고 있는 녀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인가?!

판자집

미제와 리 승만의 악정하에 시달리는 남조선에서 어디라고 사람답게 살만한 곳이 있으랴마는 도시 근로 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간 생지옥이다.

늙은 역적 리 승만 역도까지도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출 수는 없게 되였다.

합동 통신에 의하면 2월 15일 《공보실》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역적 리 승만은 《큰 도시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섬 거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판자를 두루고 거처하고 있는 것인데 옆에 땅을 파고 대소변을 보며 살고 있으니 그것이 흘러내려 먹는 물에 들어가서 봄날이 되면 세균이 생겨서 폐질을 퍼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판자집이나마 쓰고 살라고 내버려 두면 그래도 몸 둘 곳이 있으련만 《한국 대통령》은 본시가 조선 사람이 죽고 사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미국 사람의 기분에는 아주 민감한터이라, 판자집은 미국인들의 눈에 흉하게 보인다고 해서 《판자집 철거》 명령을 내린다. 그리하여 아무 대책도 없는 도시 세궁민들은 판자집에서도 쫓겨난다.

구멍은 늘고 배는 준다

허 능택 그림

괴변 제1석은 누구에게 줄것인가?

박 노 을

종신 대통령 감투를 쓰려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당시 《4 사 5 입》이란 괴변 력사를 이미 이룩한 남조선인지라 괴변의 괴변은 꼬리를 물고 계속 활보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리 승만은 그 솜씨를 워싱톤의 뒤'골목에서 배웠지만 리 승만에게서 본을 받은 남조선 소위 장관급의 괴변이 또한 가관이니, 그 1, 2 등 석차는 독자 제현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몇 장관을 등장 시킨다.

* *

사회의 안녕 질서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 경찰의 임무라고 떠버리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 경찰은 테로, 살인, 강도배의 두목으로 되고 있다.

괴뢰 내무부가 테로의 두목임을 자체 폭로한 또 한가지 사실—

대구 매일 신문사가 백주에 테로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은 남반부 언론인들의 큰 분격을 자아 냈다. 대낮에 언론 기관인 신문사를 습격하다니 언어 도단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격분한 기자들이 내무부 장관에게 항변을 들여 댔다. 그러자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답하여 가로되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니 본관의 상관 지사가 아니오.》

* *

못 먹고 못 사니 살인 강도는 늘고 살인 강도를 하려니 무기가 필요하다.

이미 무기를 찬 괴뢰군임에랴, 강도질 하기엔 제창이다. 날로 느는 군 관계자의 행패, 민원 (民怨)은 남반부 천지에 차고 넘쳤다.

한 기자가 질문의 활살을 던졌으니

《군복 강도가 횡행하고 범법자들의 군관계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여하?》

이에 국방부 장관 대답하여 가로되

《여보시요,70 만 명이나 있으니 개중에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소》

명답을 던진 소위 국방부 장관씨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70만 명 개중에는 장관 자신도 한 수'자를 차지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 *

잡부금 많기로 세계 최고봉을 이룬 남반부 학교들, 사친 회비의 명목으로 가난한 주머니를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항목은 실로 수십종을 헤인다.

사친회비, 향학 지도비, 교실 환경 정리비, 채육비, 보건비, 연료비, 학급 경영비, 실험 연구비…

그 밖에도 부교재의 강제 판매는 학교 당국을 비롯해 문교부 당국자들의 모리 행위의 좋은 미끼로 되고 있다.

여기는 문교부 장관실,

《장관 각하! 참 좋은 부교잽니다. 만일 전 국민학교에 배포하도록 허가만 해 주신다면 헤헤헤》 출판업자가 허리를 능란하게 구부린다.

《대체 뭔데요?》장관씨 구미가 동해 맞'장구를 친다.

《글 쓰기 공부에 아주 좋은 부교재로서…》

《글 쓰기? 그건 좀 곤난한데요, 글 쓰기 부교재로만도 벌써 나간 것이 〈쓰기〉〈글 짓기〉〈쓰기 공부〉…》

《그래두 버리기엔 참 아까운 교잰뎁쇼, 무슨 묘안은 없으실런지요? 헤헤헤》

《옳소, 이번엔 〈글씨본〉이라 합시다.》

《글씨본! 그거 참 좋은 이름입니다.》이렇게 또 사촌 형제 격인 글 쓰기 공부의 부교재가 학교로 홍수처럼 밀려 나간다. 너무나도 로골적인 이런 상 행위에 학부형은 물론 어떠한 학교측으로부터도 항변을 받지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교부 장관씨 대답하여 가로되

《뚜껑을 보고도 모르겠소? 쓰기 공부, 쓰기, 글 짓기, 글씨본, 뚜껑이 다르니 그 내용이 다를 것은 뻔한 리치가 아니겠소?》

그럴법한 이야긴가? 사탕에도 흑사탕, 백사탕, 각사탕, 캬라멜, 도롭쁘스… 여러 가지가 있으니.

* *

소위 《국회》는 괴변의 란무장을 또 이루고 있다. 괴변, 언쟁, 싸움… 지어는 의원석 테블 우에 명패를 명시한 삼각 패'말까지 의단을 향해 올라 간다. 옛날엔 석전이 있었다지만 오늘의 남조선 의사당 안은 명패 싸움이다. 하여 고심 끝에 명패를 못으로 꽉 박아 놓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의사당의 한 풍경,

—하루는 유•엔이 소위 놈들이 말하는 《자유》 옹호 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공 기관이냐? 하고 론쟁이 일어나 하루 해가 넘어 갈 무렵에 《외무부 장관》이 등단 하였다.

《에 유•엔은 자유 옹호 기관입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쏘련도 유•엔 성원국이니 쏘련을 옹호하는 말이되지 않는가? 당신 빨갱이 아닌가?》

당황한 외무부 장관씨《그렇다면 유•엔은 용공 기관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른 《의원》이 명패를 던지며 질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공산 국가란 말인가?》

외무부 장관씨 머리를 긁으며 어물어물 단상에서 물러 서고 말았다.

이런 외무부 장관씨도 괴변의 재능을 키웠으니 김천 사건 이후의 일언—

행인을 절도로 꿩으로 오인했다는 미군의 괴변도 괴변이려니와 외무부 장관씨 가로되

《한국측은 미군 부대 부근등 위험 지대에 접근하지 않도록 국민을 계몽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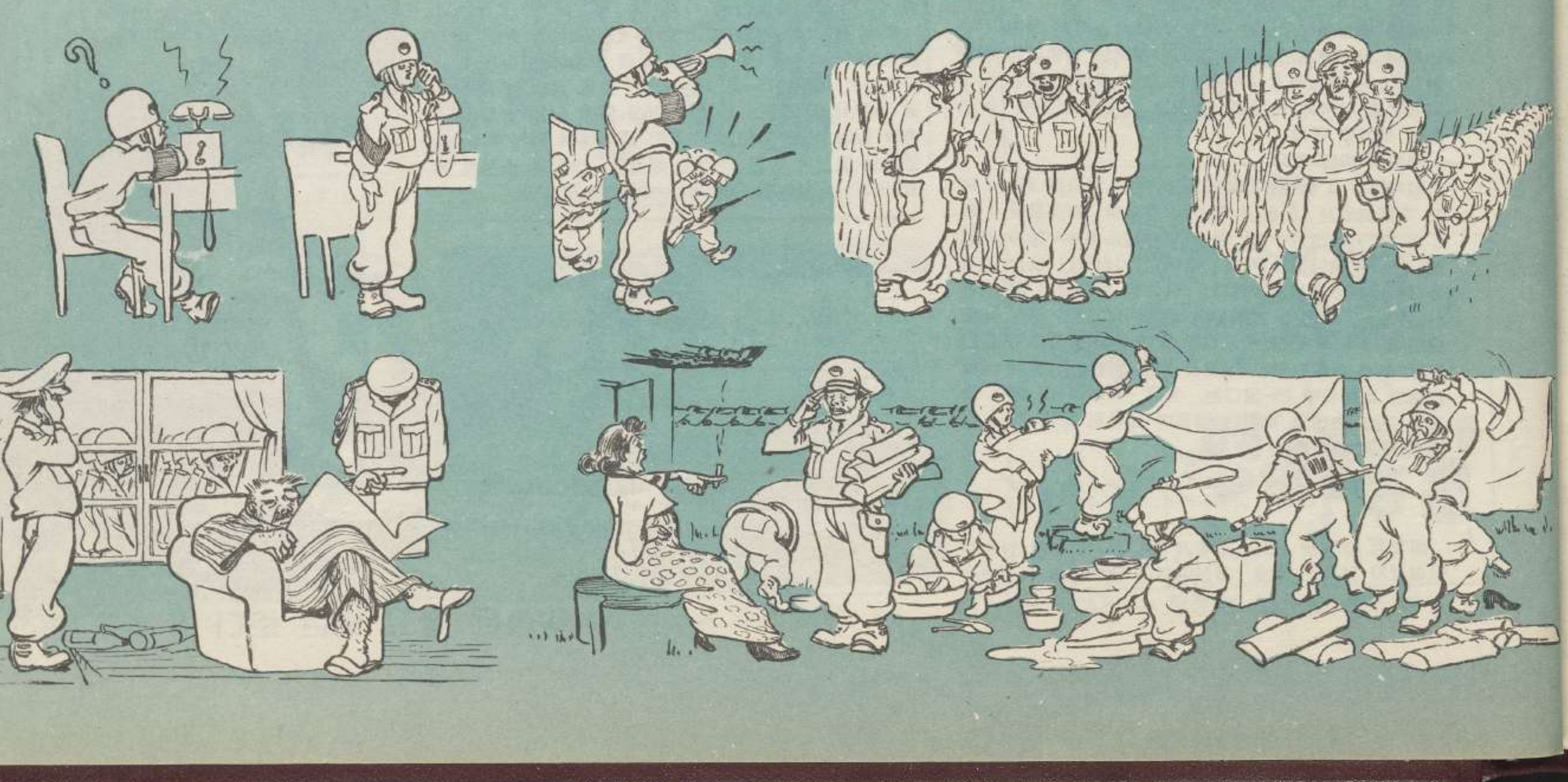
그래 미군에 의한 조선 인민들의 무고한 죽엄이 계몽하지 못한 탓이란 말인가? 그러면 묻노니 계몽한 미군의 눈에는 사람도 꿩으로 보여서란 말인가? 접근을 운운하니 대체 조선 사람이 미국 땅으로 갔단 말인가, 미국놈이 조선으로 와선가? 그 무능한 괴변자의 배후에는 따우링 대사씨의 교육이 있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아! 괴변의 왕자 미국 악귀들이여

범인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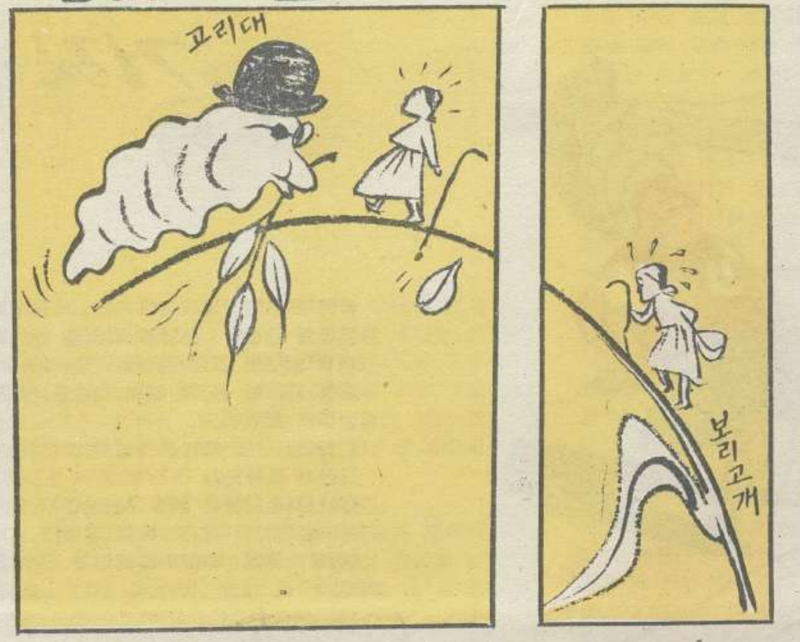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비상소집 (괴뢰군)



홍 종호 그림

유행어 만화 사전



립맥 선매

강력범

택시 깽

강도들의 조약

한 때 영국 잡지 《에코노미스트》 지는 리 승만의《헌법》과 《국회》에 대하여 쓰면서 《한국 헌법은 미국의 표본을 복사한 것이며 국회는 미국의 대통령 제도에서 빌려 온 것》이라고 비웃은 일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리 승만 정권의 족보를 캐어낸 말인데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요 그 《정권》이 미국 정부의 《대리점》 혹은 《출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자유 세계》에까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전에 남조선에서 《유•엔 한국 재건단 계획관》을 지낸 첸킨스라는 카나다인은 본국에 돌아 가서 《남조선의 진상》이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서 그는 남조선 실례를 각 방면으로 분석하고 《남조선의 실제 정권은 미군》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미군이 남조선의 《실제 정권》이라면 리 승만 《정권》이 허수아비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명백하다.

미국과 리 승만의 관계——그것은 주인과 종파의 관계이며 그 사이에는 티끌만한 평등권도 없다.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미제가 《대한민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 한다 《협정》을 맺는다 하고 떠드는 것도 리 승만이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듯한 인상을 외관상으로 조성하여 이러한 예속 관계를 엄폐하여 보자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 행동이요 그 자체가 가장 몰염치한 침략과 략탈이다.

작년 가을에 《비준서》가 《교환》된 악명 높은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경우를 두고 보자.

미제는 이 《조약》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을 엄폐하기 위하여 《조약》내용의 《평등》성 《우호》성 《호혜》성에 대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였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남조선 상인이 나루'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대 은행과 대 기업소들과 주식 회사들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자본가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장'대로 별 따기를 망상하는 것 보다도 더 어리석은 망상이다. 결국 이것은 미국 독점 자본에 의한 남조선 경제의 전면적인 지배와 병합과 략탈을 가리우기 위한 한개 병풍에 불과한 것이다.

미제는 바로 이런 식의 《조약》으로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하나 둘씩 움켜 쥐였고 인민 재산을 수탈했고 전반적 예속을 강화하여 왔다.

1948년 9월 11일 미제는 리 승만 도배와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여하한 형태를 막론 하고 자기들이《관심을 가진 재산》을 괴뢰 정부로부터 이양 받을《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았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그들이 군정 기간 중에 비법적으로 소유한 8천 여 호의 적산 주택, 일제가 소유하였던 2 천 여 척의 대 소 선박과 5천 여 개의 기업체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서울에 있는 반도 호텔, 체신 회관을 비롯한 주요 건물과 고급 주택들과 광대한 토지와 광산 개발권을 장악하였다.

동년 12월 10일 미제는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이 《협정》으로 남조선의 대외 무역과 량곡에 대한 통제권 및 전략 자원에 대한 략탈권을 장악하고 미국 장사'군들에게 《상업, 산업, 해운 및 기타 영업 행위》에서 《특별한 대우》를 주었다.

이 《협정》이 조약된 후 남조선 경제 분야 특히, 류통 부문에 미국 상인들의 침투가 현저하여졌는데 1955년 8월까지에 벌써 138 개의 미국 계통의 장사들이 남조선에 침투하였다.

미제는 1949년 1월에 《한미 석유 협정》을 조작하고 미국의 3 대 석유 독점체의 하나인 《쉘 스탠다드 칼텍스 오일 회사》의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그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석유류의 수입, 인수, 운반 배급》 전반에 걸친 일체 독점권을 장악케 하였다.

이 《협정》은 미국 석유 회사로 하여금 석유의 독점 판매를 보장케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독점을 리용하여 공급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유류 값을 계속 폭등케 하여 생산에서 원'가를 높임으로써 남조선 상품이 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견디여 낼 수 없게 하며 이러한 교활한 방법으로도 미국 잉여 상품을 더 많이 팔아 먹자는 데도 또 목적이 있다. 오늘 남조선의 중 소 기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계속 조업을 중단하며 파탄 몰락되고 있는 것은 이런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미제는 또 1952년 3월에는 《한미 중석 협정》을 조작하여 전략 물자인 중석의 구매 독점권을 장악하고 1954년 3월까지 불과 2 년 동안에만도 남조선으로부터 1 만 5 천 여 톤의 중석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눅은 값으로 략탈하여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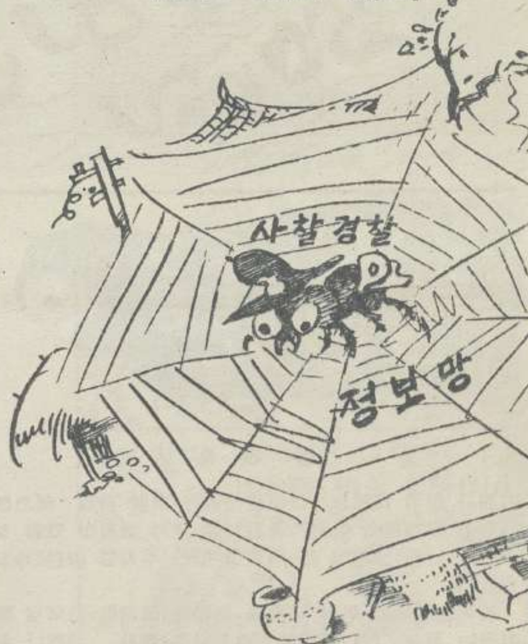
미제는 1952년 5월 24일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이 《협정》에 의하여 소위 《유•엔군 경제 조정관》이 완전한 통제권과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조작하고 이로 하여금 남조선의 경제 계획과 형편에 관한 일체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금융, 외화, 무역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실시케 하였다. 이것으로 남조선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말살되고 경제의 군사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그 후 즉 1953년 12월 14일에 미제는 다시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경제 위원회》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미국 민간 자본을 남조선에 광범히 침투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괴뢰 정부가 관할하고 있던 소위 《국영 기업체》들을 전반적으로 《민영화》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1954년 11월 17일에 발표된 《한미 회담 의사록》에 의하여 구체화 되였는데 미제는 이것으로 괴뢰 정부로 하여금 《헌법》에 규정된 중요 기업체들의 《국유》제도를 철폐하고 그를 개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하는 한편 미국 자본이 얼마든지 그곳에 침투할 수 있도록 《외국 자본 도입 법》까지 만들 것을 리 승만에게 책임지웠다. 이리하여 수 백 개의 광산을 비롯하여 금융 기관, 공업, 운수, 전기등 남조선 경제 전반에 걸쳐 거이 대부분의 중요 기업체들이 《불하》되였는데 거기에 미국 독점 자본이 이리떼처럼 기여 들게 된 것은 명백하다. 미국 사자본 침투의 무제한한 자유를 규정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체결이 바로 무엇 보다도 웅변으로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실로 이 《조약》은 미제가 조작한 과거의 일체 《협정》들을 통하여 행사하여 오던 식민지 지배의 온갖 행포한 강도적 특권들을 총화 완성한 희세의 침략 《조약》이다.

처음에는 발목을 잡고 다음에는 손 목을 얽어 매고 그리고 목을 누르는 정책, 이것이 미국놈의 정책이다.

이놈들을 몰러 가게 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한 순간도 자유와 권리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반 강화 대책



백 인균 그림

칼로 물 베기

박 승히 그림

가까워 오는 위기의 검은 그림자

황 진 식

최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미국 경제 형편에 대하여 말하면서 《금년 중간기에 경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나의 의견에 전 국민이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아이젠하워가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그의 자유에 맡기기로 하자. 그러나 자기 말에서 아이젠하워는 한가지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현재 미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그 자신이 몹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자유 세계》의 영원한 번영과 《자유 경제》의 사시 장철 호경기에 대하여 그렇게 불어 대던 미국 지배층들과 그의 월가 대변인들의 눈 앞에서 미국 경제가 급속한 하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기분을 일으킬 수는 없다.

미국 공업 생산은 급전 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1947~1949년 공업 생산 지수를 100으로 하여 1956년에 146이였다면 이것은 그후 정체 상태를 계속하다가 1957년 12월에는 136, 1958년 1월에는 133 으로 급속한 하강선을 보이였다. 공업 생산의 저하는 회사들의 조업 부족을 가져 오고 있는데 강철 공업은 1958년 1월에 54 %밖에 조업하지 못하였다.

창고에는 방대한 물자들이 쌓여 있으나 언제 누구에게 팔릴 것인지 까마득하다. 조업의 부족으로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가두에 무자비하게 내 동댕이치고 있다. 실업자 떼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1957년 10월에 250 만이던 것이 12월에는 370 만 1958년 1월에는 449 만 (미국 력사에서 최고) 앞으로 이것은 500 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한편 물가는 등귀하며 인플레는 격화되고 있다. 로동자들의 임금은 저하되고 있다. 늘어가는 실업자는 그들의 생활 전망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 《나는 6주일 전에 남편과 함께 해고 되였습니다. 어린것들이 넷이나 되지요. 1929~1932년 공황을 생각하면 몸서리 칩니다. 나는 어린것들이 쓰라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뉴저시주의 한 흑인 녀성 실업자의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지배층들이 실시하는 《랭전》과 군비 경쟁의 정책의 후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군비 경쟁으로 미국의 이 경제 위기를 모면하여 보려 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다음 회계 년도 예산안 739억 딸라 (평시 예산의 최고) 중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458억 딸라를 배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간접으로 군사적 목적에 지출되는 것을 합치면 전체 예산중 81 %가 군사비로 충당된다. 사회적 복리를 위한 예산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이 방대한 군비 예산을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법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신 회계년도 세입의 65 %를 보장해야 한다. 미국 위정자들은 대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으니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인민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군비 경쟁으로 골병이 든 미국 경제를 다시 군비 경쟁의 격화로 자극하려는 시도는 아편 중독자에게 아편 량을 높이는 것과 같아서 환자의 말로를 촉진시킬 다름이다.

미국 경제에는 위기의 검은 그림자가 더욱 닥쳐 오고 있다.

아이젠하워가 앞으로의 호경기에 대하여 자국 인민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여 자기 의견에 그들이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거짓 말 경쟁의 우승자

항 림

뉴욕 이스트•싸이드의 어느 식당에서 테불 하 둘러싸고 세명의 손님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친구인 킵슨 청년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구들이 자리를 권하는대로 킵슨은 앉으면서 그제야 각난듯이 물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4월 초하루 안야?》

그러자 리챠드가 대답했다.

《아니지, 오늘은 3월 그믐날이지.》

헨더슨은 거기에 또 밥을 달았다.

《어제가 3월 29일이였으니까 오늘은 분명히 이지.》

그런데 이날은 4월 1일이였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 날가는 줄도 모른다거나 3월은 31일까지 있다는 걸 모른다거나 하고 생각해서는 오해다. 미국에는 괴상한 버릇이 있어서 4월 1일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유쾌한 놀음으로 되여있다. 또 이날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찬양하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표창까지도 한다.

헨리는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제 우리 처삼촌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가 총각이였다.) 작년엔 그의 농장에서 착실히 재미를 보았다더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파종할 때 밀 종자와 함께 호미 종자와 낫 종자까지 뿌렸다나! 그랬더니 밀이 자랄 때는 호미 나무에서 호미들이 척 늘어져서는 바람이 불적마다. 흔들리면서 김을 매 놓군 하더래, 그리구 밀이 익자 낫 나무의 낫도 날이 퍼래져서는 산들 바람이 부는데 따라 앞 뒤로 흔들리면서 쓱 쓱 하고 밀을 다 베 눕혔다더군.》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헨더슨이 말을 받았다.

《임자네 처삼촌은 좋은 재미를 본 모양이네마는 나는 지금껏 집에서 안해의 야단을 겪다가 이제야 겨우 석방 되였네. 사흘 밤을 나가 자고 집으로 돌아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해가 잔뜩 부어있질 않겠나? 그래 별 도리가 있어야지, 거짓말을 하는 수 밖에. 노여워 마시우, 내니 이렇게 사흘씩이나 걸릴 줄이야 알았소, 잠간 소풍이나 하고는 돌아 오려고 달 나라에 갔더니, 그새 갑자기 기상 조건이 나빠져서 로케트가 날지 못한다는 거야 어찌겠소, 하고 빌었지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말을 누가 믿어요. 전번엔 화성으로 출장 간다고 나가서는 한달 동안이나 딴 계집년네 방에 쳐박혀 있지 않았어요, 하더니만 우주 항공 회사에 전화를 걸지 않겠나? 하나님 맙소서, 거짓말이 들어나겠구나 하구 가슴이 덜렁 내려 앉더군 그런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 덕분에 우주 항공 회사에서 대답하기를 지구와 달과의 중간 지점에서 풍속 100 메터의 대 폭풍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일시 두절돼 있었다는 거야, 덕분에 겨우 석방됐네.》

리챠드도 한몫 끼였다.

《임자네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일신상의 문제에 그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언제 어디로 가든지 늘 사회의 복리를 위해 일하고 있거든! 언젠가 한번은 어느 농촌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기에 우물'가로 갔더니만 늙은 로파 한분이 드레로 물을 길고 있기에 우물을 들여다 보니까 아휴 깊기라니! 한 백 피드는 되겠데. 로파가 한탄하기를 우물 바닥에는 물이 언제나 많이 고여 있건만 너무나 깊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고생을 면치 못한다지 않어,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팔장을 걷고서 우물을 쑥 뽑아서는 거꾸로 넣어 놨지. 우물 바닥이 우로 올라 오도록 말이네. 그랬더니 그후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드레박을 쓰지 않고도 우로 올라 온 밑바닥에서 직접 물을 길을 수 있게 됐다네.》

셋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킵슨이 평가를 했다.

《임자네들의 거짓말은 모두 그럴듯 하네 그러나 임자네를 보다 거짓말 솜씨가 월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자네들 중 그 어느 사람에게도 우승의 영예를 드릴 수가 없네.》

《그게 대관절 누군가?》

셋이 함께 물었다.

《들어보게.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입네 하고 선전을 해 놓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꼴찌니,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거짓말 인가? 쏘련의 인공 위성들이 뜨자 뱅가드 (앞선자란 뜻)가 꼴찌란 것이 판명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세. 달나라에는 성조기 (미국 기'발)가 먼저 휘날릴 듯이 떠들어대며 달나라 땅을 미리 팔아 먹고 있던 그자들이, 쏘련에서 우주권 려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지금에 와서는, 우주권 비행을 통제하자는 말을 하게 됐으니, 임자네들 따위와는 비할 바가 아닌 거짓말쟁이지. 오직 인간들의 행복과 평화스러운 생활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쏘련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이니 공산주의 위협이니 하고 떠들어 대는 것부터가 몽서 고급을 통해서 최상급의 거짓말이지만, 조선 문제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드래도 백악관의 처사가 거짓말 투성이고 담을 가리켜 문이라고 하는 짓이 아니고 무언가? 단 한표의 찬성 투표도 받지 못한 리 승만이를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는 4사 5입으로 리 승만이를 다시 그 자리에 눌러 앉게 한 솜씨를 어떻게 임자네들의 거짓말 솜씨 따위와 비길 수 있겠나? 조선의 도시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고 조선 사람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그걸 경찰 행동이라고 했으니 그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인가? 북조선에 무력이 증강됐기 때문에 남조선 군대를 증강시키며 신 무기를 남조선으로 보내야 한다고 떠버리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인즉 북조선의 인민 군대가 줄었을 뿐 아니라 지금 중국 인민 지원군이 철거하고 있으니, 백악관의 이야기가 얼마나 천재적인 거짓말로 가득차 있는가를 임자들도 알 수 있을 거네. 일년에 4월 초하루가 삼백 예쉰 다섯날 있는 걸로 여기고 있는 백악관이 있는 한, 누구도 거짓말로 장원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하네.》

미군의 남선 주둔 구실

자유를 가져 오기 위하여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 사람을 돕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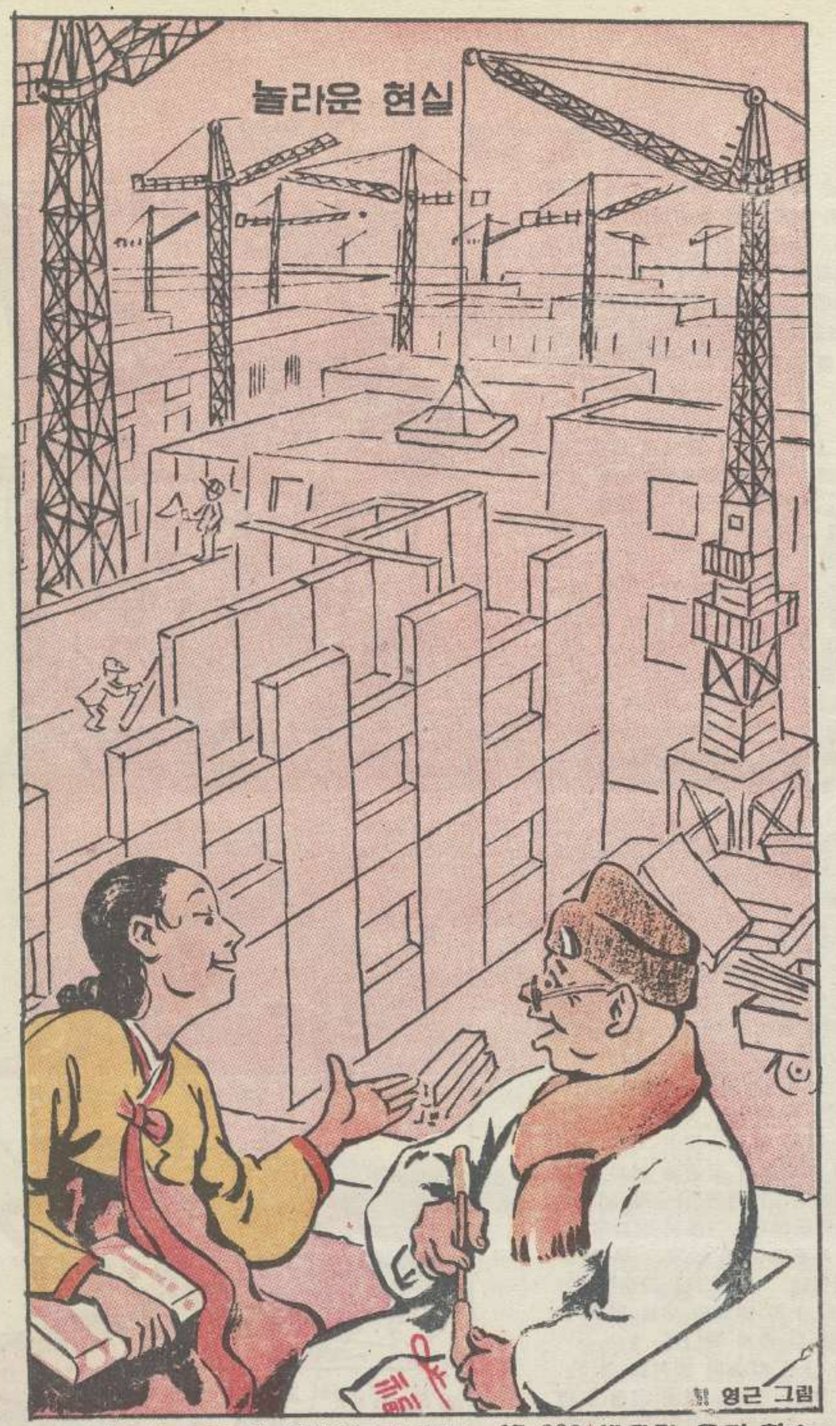
요청에 의하여

최 영근 그림

《대책》

송 용남 그림

허 능택 그림



—무엇이! 금년에 평양에 건설되는 17,000 세대면 우리 함흥 인구가 다 몰어 갈만 하다구?
—그뿐인가요. 26분만에 한 세대씩 건설된다오

강의하는 식으로 걷는다면

—저 강사는 왜 저렇게 빙빙 돌아서 갈까?
—강의는 그보다 더 돌아 가는 걸

일 안하는 장들

달고 식고 썩는다

황해남도 장연군 박상리 련산 농업 협동 조합 한 조합원이 부기원을 만났다.

《부기원 동무·요즘 어떻게 지내오?》

《나는 요즘 달아 죽겠네.》

《달다니?》

《관리 위원장은 내게 자꾸 독촉하는데 작업 반장들이 결산 후 60일이 지나도록 암만 독촉해도 노력일 계산서를 내 주지 않으니 달 수 밖에》

《허 참》

《자네는?》

《나는 식었네》

《식다니? 무엇이??》

《작업 반장이 노력 수첩을 정리하지 않지요. 우리는 궁금해서 노력일 계산한 걸 알려 달라고 몇 번이나 그랬건만 알려 주지 않아 자기가 몇 노력일 벌었는지도 알지 못하니 일할 열의가 식어졌단 말이네.》

《거 참 그렇군.》

《그래 자넨 달고 나는 식었는데 관리 일'군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썩지》

《썩다니? 사상적으로 부패됐단 말이지?》

《아니야, 작업 반장들이 이렇게 노력일 계산서를 안 내 주니 노력 투하 정형과 가동률, 작업 능률 장성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속이 썩는단 말이네.》

《과연 그렇군 그러다 보니 일 안하는 작업 반장 김 동환, 리 웅영, 김 덕원 세 사람이 온 조합원들을 달구고 식히고 썩이고 하누만》

허수아비

풍산군 유상하리 유상 농업 협동 조합 검사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자기를 검사 위원장으로 선거했을 때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검사 위원장 처신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앞에서는 부러 점잖을 빼고 또 회의 때에는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유식한 문구를 써 가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군 할 줄 알았다.

조합원들은 모두 그를 조합 간부로 존경했다. 늙은 사람들도 그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였고 어떤 축들은 그를 높여서 《검사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사 위원장은 조금도 어색해 하지 않았다. 조합의 검사 위원장이니 조합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응당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합에서 여는 회의나 행사 때면 으레히 주석단에 앉으려니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주석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신임과 존경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된지 1년이 지나도록 검사 위원회 한 번 안했고 조합 재정 정형에 대한 검사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 관리 위원장이 결산 때 아마 60 키로를 누락시켰다가 팔아 사취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때는 조합원들이 자기를 검사 위원장으로 선거한 것을 제가 동리의 어른이기 때문에 명예 직위로 추대한 줄로 아는 모양이다.

꼬리 떼 놓고 대가리 떼 놓고

문천군 가평리 가문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옥수수 가을이 늦었으니 래일은 조합원들은 물론 부대 노력까지 총 동원돼야 하겠다고 굳이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떨어 났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예상보다 퍽 적었다.

《아니 총 동원이라고 야단치더니 다나오지 않았구만요?》

한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왜 안나와, 관리 위원들 내 놓고야 다 나왔지》

《총 동원이라면서 그 사람들은 왜 안나오나요》

《그 사람들은 간부니까.》

《그럼 그 사람들 집에서는 왜 안나오나요?》

《그 사람들은 간부의 부인이니까.》

《여윈 당나귀 꼬리 떼 놓고 대가리 떼 놓고 먹을 게 뭐 있어요?!》

리 운 봉

높은 책임성

김 문규

황해북도 인민 위원회 관개 수리 부장 김 철원 동무가 자기를 위해 줄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는 《인생관》을 가진 것은 오랜 수 십년 전부터의 일이지만 최근 이 인생관을 더욱 굳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위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성》을 소유해야 하겠다고 《방법론》까지 명확하게 한데는 역시 그럴듯한 동기가 있다.

이야기는 좀 낡았지만 작년 이른 봄에 있은 일이다. 지도부 협의회에서 자기 부서 사업 정형에 대해서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헤덤비다 나니 부원이 만들어 준 원고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그만 협의회에 들어갔었다. 간신히 글은 읽어 내려 갔는데 수'자는 무엇이 무엇인지 통 갈피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도부 성원들은 왜 수'자를 말하지 않느냐고 독촉하지, 부장 체면상 수'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우물쭈물하다가 망신을 톡톡히 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것은 보고 원고를 잘 만들지 못한 부원의 책임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글쎄 생각해 보라니깐 망신은 내가 당했지만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한 것은 바로 원고가 데데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데데한 것은 그것을 되는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책임은… 뻔한 일이지》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하겠으며 다시는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책임을 따금히 따져야 하겠으며 하는 일장의 연설을 부원들 앞에서 늘어 놓으면서 부장 김 철원 동무는 이런 구절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해서 《높은 책임성》은 발휘되기 시작했다.

설계원 정 운식 동무가 부장 앞에 불리워 왔다. 《글쎄 이 설계 꼴이 무어요. 방은 좁지 거게다 벽장 위치가 내 비위에는 맞지 않거든, 설계를 다시 만드시요. 썩 다시 만드시요.》

바루 몇분 전에 지나간 도의 어떤 간부가 관개 수리부에서 요즘 짓고 있는 집의 방이 좀 좁은 감이 있다는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이렇게 설계원을 다구쳤다. 설계원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그것은 벌써 오래 전에 부장 동무가 비준해서 지금 건축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 판인데요》

《무엇이, 내가 비준했소? 그래, 보자구 아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다구, 그런데 그것은 방이 좁아지고 벽장이 잘못 붙는 것을 책임 지겠다고 해서 찍은 도장은 아니야, 내가 부장이니깐 찍은게지, 좌우간 취소해야 하겠소.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 도장도 취소해야 하겠소》

이렇게 하여 부장은 자기가 찍은 도장 자리를 설계 도면에서 오려 냈다.

《높은 책임성》 때문에 이미 찍은 도장 자리를 오려 내는 사업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부기원 임 진호 동무는 부장에게 불리워 가서 한 해 대책용 예산의 절반을 계획외 공사에 몰아 넣게 한 책임을 단단히 추궁 받은 연후에 그렇게 하라고 부장이 이미 찍어 주었던 도장 자리를 오려 내서 반환하고 돌아 왔다.

책임성이다! 책임진다! 부장으로부터 부원까지 입'버릇이 되였다. 《높은 책임성》은 도내 관개 수리 부문 일'군들 속에서 전염병처럼 만연되였다.

때는 아직 겨울철이지만 날씨는 오래지 않아 다가오는 봄철을 련상케 따뜻한데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찌뿌둥한 얼굴을 하고 부장 김 철원 동무가 사리원 관개 수리소에 나타났다.

《아니 그래 아무리 전화로 말해도 종시 듣지 않겠소. 도 배전부에 목재를 돌려 주겠소? 안주겠소? 돌려 주시요.이것은 관개 수리 부장이 주는 당당한 행정적 명령이요.》 부장은 서리가 등등했다.

《글쎄 올시다.》 자재 과장 김 동익 동무는 손을 싹싹 비비면서도 할 이야기는 다 해야 하겠다는 속심으로 말을 이였다.

《지시는 틀림 없는 지신데 글쎄 그 지시가 전화로는 좀 곤난합니다. 그저 도장 찍은 지도서나 확인서가 한 장 있으면 문제 없는 데요》

《뭘! 도장을 찍으라구, 누가 그런데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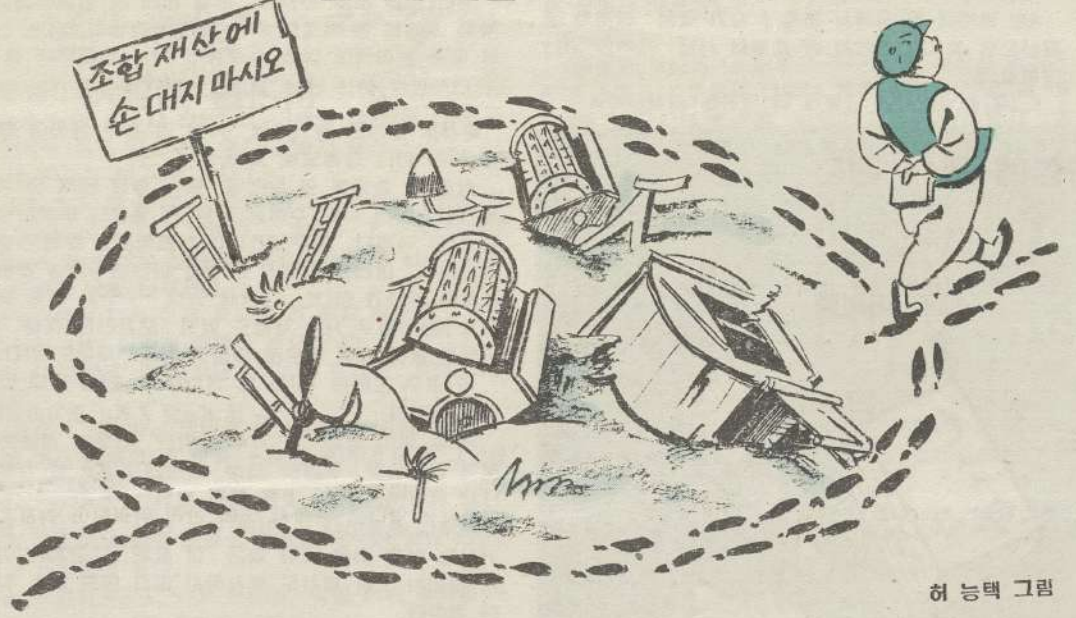
도장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질겁이다.

《그래도 나종에 가서 그런 전화는 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요, 책임성 문제지요》 불그락 프르락해진 부장은 끝내 말을 골라 내였다.

《동무는 상부를 모독하는 거야. 상부를 존경해야 하는 책임이 아래 일'군들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 두어.이것도 높은 책임성 문제야》 부장 김 철원 동무는 이렇게 해서 《높은 책임성》이 해당되는 범주를 더욱 확장시켰다.

보신 주의

삼천군 신물 협동 조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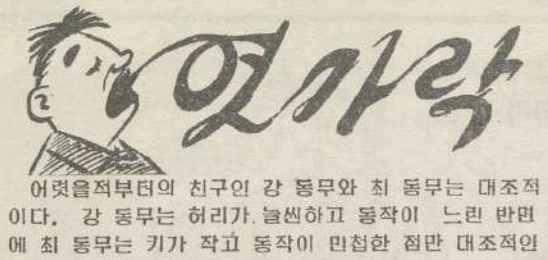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팔지 못한 리유

홍 종호 그림

수매 가격이 안내려 와서 / 수매 자금이 떨어져서 / 털이 상해서



엿가락

어렸을적부터의 친구인 강 동무와 최 동무는 대조적이다. 강 동무는 허리가 늘씬하고 동작이 느린 반면에 최 동무는 키가 작고 동작이 민첩한 점만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최 동무는 언제나 이야기가 길어지군 하는 반면에 허리가 길다란 강 동무는 되려 말이 뜨직하고 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강 동무는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임자의 론설을 읽었네, 이번 달 잡지에 실린…》

《그래 어떻던가? 독후감을 좀 들어 보세. 필자는 언제나 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법이니까. 읽은 소감을 좀 말해 보게.》

《알아 둬야 할 좋은 이야기두 있더군!》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못한 이야기두 있더란 말이지? 그래 어떤 점이 좋구 어떤 점이 좋지 못하더라고 좀 자세히 말해 주게.》

《배울만 하다고 느낀 점들이 있어.》

《그러기에 말이네. 어떤 점이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가지게 하며 정신의 량식이 되게 하는 대목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말이네. 대관절 어느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나? 읽으면서 느낀 감상을 좀 이야기해 주게.》

《읽을 때의 감상이라면, 난 임자의 글을 읽는 중에 그만 눈물을 흘렸네.》

《허어 그러면 상당히 감동했군 그래. 자랑은 아니지만, 론설을 읽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도록 쓴다는 건 용이한 일이 아니네.》

《도라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말이지.》

최 동무는 그만 흥이 얼마간 줄었다.

《뭐 할아버지를?!》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셨기에……》

《그건 그렇다 치고, 기왕 말이 난 김이니 내 론설의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선 말해야 할게 아닌가?》

《잠간 기다리게, 우리 할아버지의 친구 한분이 글씨도 명필이지만 글이 또한 명문장이였어.》

《가만 있게, —여기 관계가 별로 없는 옛말은 다음에 한가히 틈을 내서 듣기로 하고, 운을 뗀 바에는 딴 말은 그만 두고 내 론설에 대한 평부터 해야지.》

《그와 아주 관계가 없진 않지, 그분한테서 편지가 오면, 할아버지는 길다란 종이에 쓴 편지를 척 절반으로 접어서는 절반은 내놓고 후반부터 읽었어.》

《그건 또 왜?》

《성미가 급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후반만 읽어서야 문맥이 통하나?》

《그분은 글이 명문이라 청산류수 같이 엮어 내리는데, 전반에 의례 형용사와 수식사 뿐이고 요긴한 내용은 반쯤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였으니까.》

강 동무의 이야기가 도무지 긴치않은 데로만 다라나는 바람에 최 동무는 약간 역증이 났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단 말인가? 대관절 임자는 무얼 말하자는 건가?》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걸루 다야.》

《그러기에 여기 관계가 없는 옛 말은 차후에나 듣자고 하지 않어?!》

《읽는 중에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런 정도로나 관계가 있는 걸 다 이야기 하려면 끝이 있겠나? 구체적인 평이 듣고 싶다는 말이네.》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니 말이지만 첫 페지를 펴 놓으니까……》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지.》

《첫 페지를 펴 놓으니까 낯이 익더군!》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그런것 까지 말할 건 없구… 내 이름은 물론 낯익겠지.》

《안야, 이름 뿐 아니구, 글 내용이 말야. 그래서 왕복 독법을 그만 두고 대각선 독법을 했지.》

《뭐, 왕복 독법은 뭐구 대각선 독법은 또 뭔가?》

《왕복 독법이란건 한 줄씩 우에서 밑까지 다 읽고는 다음 줄로 옮겨 가서 우에서 밑까지—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보통 독서법이지.》

《그럼 대각선 독법은?》

《한 페지의 첫 자에서 마지막 자가 있는 데까지 원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 줄에서 서너 자씩만 읽는 법이지.》

《그렇게 읽어서야 어떻게 글 내용을 알겠나?》

《남들이 벌써 여러번 이야기한 걸 되풀이 하는 거니까 읽기 전에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간색만 보면 짐작이 되지. 그런데 절반쯤 내려가니까 그때는 왕복 독법이 아니군 안되겠더군. 거기서부터는 임자가 특히 말하고 싶은 본론인 모양이더군.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선 글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겠더군.》

《에끼 고얀 사람 같으니라구. 무슨 소린가 했더니, 결국 험구로구먼 그런 결점이 있으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명확히 말할 법이지, 사람을 그렇게 골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기에 임자의 글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어?! 간단 명료히 말할 수 있는 것도 빙빙 에돌려서 관계가 있는듯 없는듯 한 이야기를 끌어 가면서 이야기를 엿가락 같이 늘여 놓는 법을 말이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

△ 시중으로 가는 돼지

자강도 만포군에서는 꽤 크게 자란 돼지를 보구 <아그 돼지 꽤 컸는데— 오라지 않아 시중 가게 됐구만—> 하는 말이 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이상할 건 없다. 만포군에서 다 큰 돼지가 왜 시중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만포군으로부터 독로강을 따라서 시중으로 가는 30 리 남짓한 길에서 늘 시중 가는 돼지를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지게에 지고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몰구 가기로 했는데 그 육중한 몸뚱이를 가늘고 짧은 다리에 싣고 한 뼘씩이나 내디디는 데 그납아도 꿀꿀거리며 도중의 일에는 다 참견하며 이구석 저구석 빠져 다라나질 않나, 자동차 소리만 멀리서 나도 혼비백산을 할 지경이니 숫한 고생을 하고 하루 품은 꼼빡 놓아야 한다.

소비 협동 조합 만포군 련맹 산하 각 상점들에서는 육류 수매를 한 키로도 하지 않은 상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곳 농민들이 멀리 시중까지 가서 팔아야만 했다.

△ 머리를 채워서

량강도 부전군 대거리에 사는 리 경수 농민이 량곡을 팔러 한대 상점으로 갔다.

상점 앞 마당에 와 닿았을 때는 벌써 먼저 온 농민 몇 명과 한대 상점 수매원과 된다, 못된다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였다. 알구 보니 이 상점에서는 쌀을 수매는 하는데 꼭 머리를 맞춰서 20 Kg 아니면 40kg 래야만 수매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키로 수가 차지 못한다고 도루 메구 가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헐레 벌떡 집으로 되돌아 가는 사람도 있다.

리 경수 농민은 지고 온 쌀자루를 저울 우에 갖다 올려 놓았다. — 18 Kg요 2 Kg 모자랍니다.

돈 쓸 일이 있는 리 경수 농민은 부득이 집에까지 헐떡 걸음으로 되돌아 와야 했으니 2 Kg 를 채우고 나서 이번에는 남는 것을 도루 지고 가야했다.

배부른 흥정이다. 먼데 있는 다른 상점으로 팔러 가지는 않을 것을 믿고 있는 이 상점 일'군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 일도 하기 쉬웠던 것이다.

그래서 숫한 농민들이 두벌 걸음을 걷거나 안팎 짐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안가지신다고.

△ 옷차림을 보아가며

처음으로 외손주를 본 박 령감은 딸네 집에 갈 차부를 재촉했다.

—떡'감은 옛날부터 외가에서 해 가기로 돼 있으니 떡'감이나 하고 저고리나 뒤깨 바쳐서 해다 줍시다그려, 애 에미 먹을거나 좀 사 가지고—

—글쎄……

박 령감의 글쎄라는 말은 항용 별다른 의견이 없을 때에 쓰여지는 말이다. 그래서 마누라는 읍 상점엘 갔다 온다고 부루루 나간다.

—여보 읍 상점엘 가려거던 옷이나 깨끗이 차려입고 가오

—뭐 그까짓 데나 가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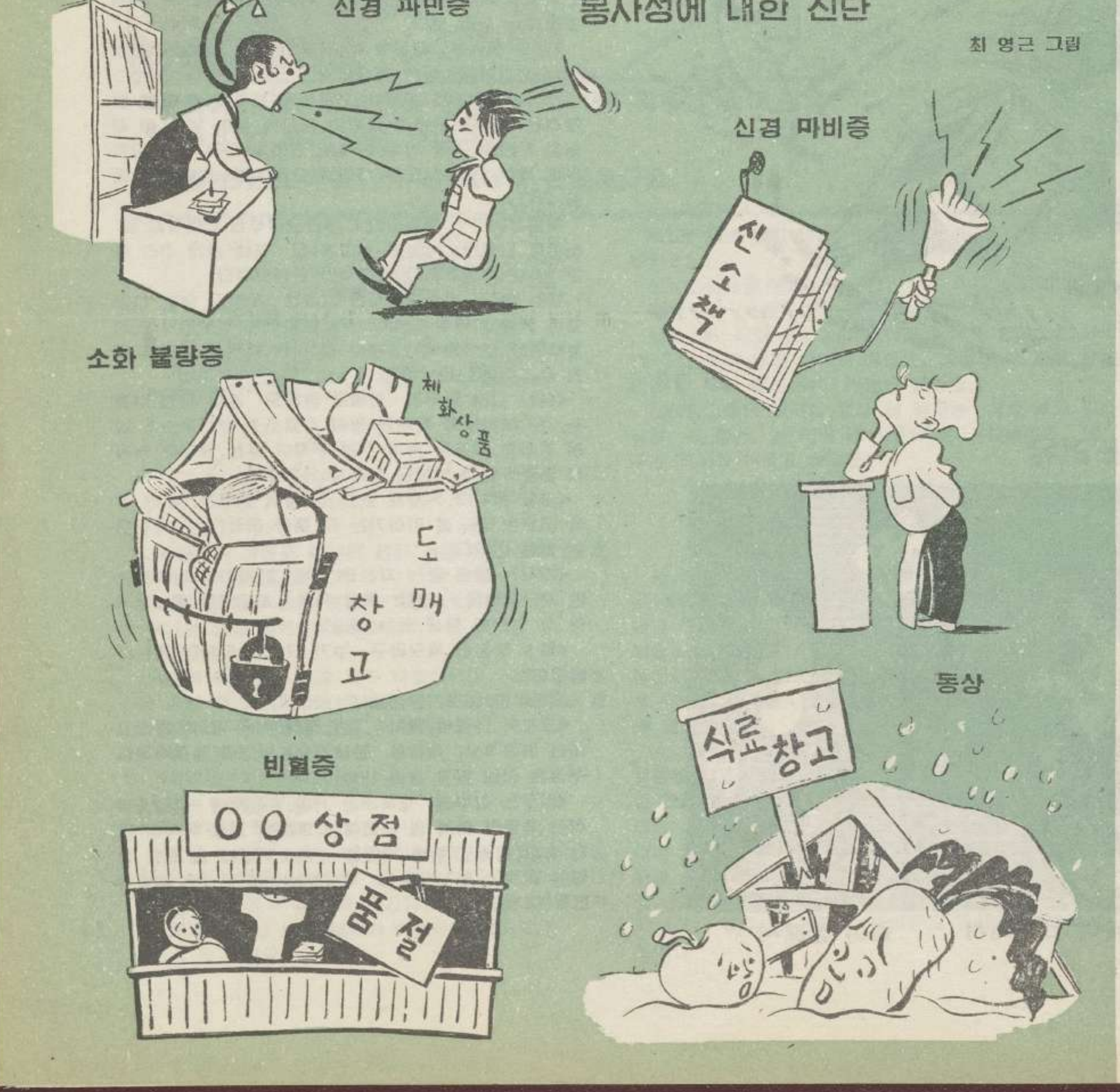
—그까짓 데라니, 그 상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소문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평북 피현군 읍 상점 판매원 유 동숙 동무는 낯 골라 가며 옷 차림 보아가며 물품을 팔고 있으니, 읍내에서 도는 말이 그 상점엘 가려면 잘 차려 입고 가야 바른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김 상 애

봉사성에 대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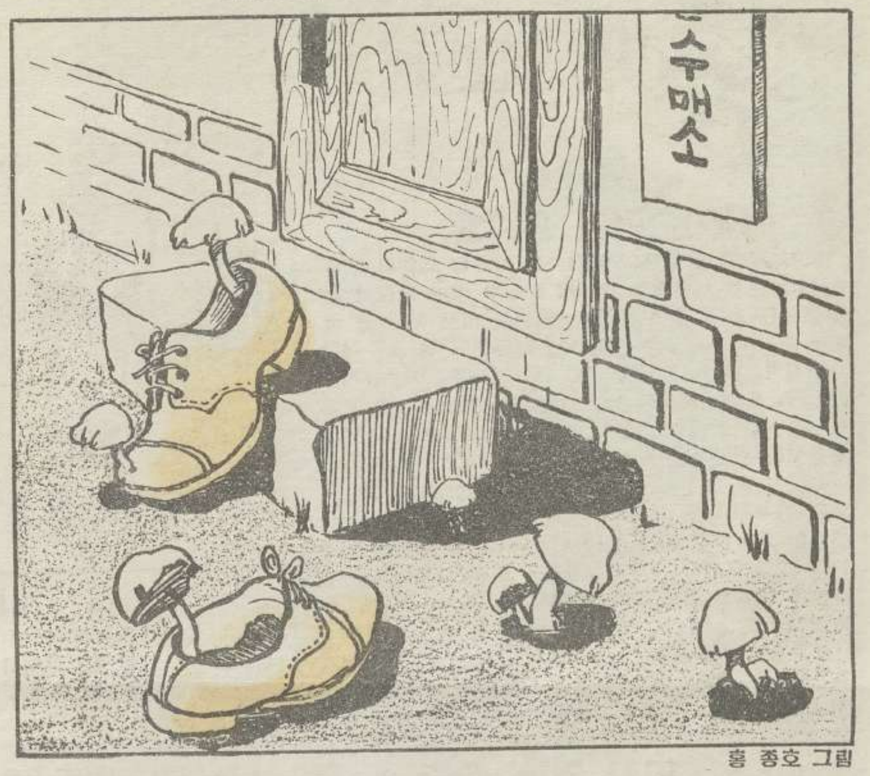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제품은 떨구고 재료는 썩인다

조 명식 그림

신발에 표시된 수매 실적



홍 종호 그림

낡은 잔재들

최 령감의 착각

최 령감은 풀을 베려 가려고 낫을 찾아 보았으나 웬 일인지 낫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달이 나서 구석구석을 뒤져 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다.

《박 령감이 또 가져 갔나?》

그럴 판에 박 령감이 낫을 들고 사립문을 들어 섰다. 낫을 보니 자기 낫이다. 그러나 그 낫이 붙어진 것을 본 최 령감은 눈알을 부라리며 달려 가 박 령감의 손에서 낫을 나꾸챘다.

《자네에게 다신 아무 것도 빌려 주지 않겠네. 남의 새 낫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어리둥절해진 박 령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령감, 그게 자네 낫인줄 아나? 찬찬히 보게》

최 령감은 뺏아 쥔 낫을 찬찬히 들여다 본즉 그것은 조합 낫이였다.

《그 놈이 신통히 내 낫과 비슷하군 난 또…》

최 령감은 붉혔던 얼굴에 화색을 띄우며 낫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헌데 공거롭게도 낫이 마당에 박힌 돌에 부딪쳐 조금 남아 있던 날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최 령감은 이제는 아수해 하지 않았다.

후 회

명천군 고창 농업 협동 조합 리 종인 조합원은 금년 34 세의 실한 농군이다.

그는 조합에 가입하여 일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나 1956년에 들어서서는 딴 궁리가 났다. 힘든 농사일을 하는 것 보다 헐한 소 장사를 해 보자는 것이였다.

리 종인은 조합 일에 안나오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씩 어데론가 갔다 오군 하였다. 그래서 조합 관리 위원장이 그의 집에 찾아 왔다.

《왜 조합 일을 나오지 않소?》

《나가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는데 나가면 뭘 하겠소》

《그럼 왜 이야기를 안하우? 이야기 하면 알맞는 일을 시키지 않겠소》

《……》

《애로가 있으면 다 이야기 하우.젊은 사람이 놀기만 하면 되겠소.소원대로 알맞는 일을 시켜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나 리 종인은 씨원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리 핑게 저리 핑개하면서 소 장사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좀 공'돈이 떨어지면 얼마 동안씩 누워 먹군 했다. 그의 처도 겨뭍어서 조합 일에 안나갔다.

《임자도 나 같은 사람을 만났기에 가만히 앉아 먹을 수 있어》 리 종인은 안해에게 이런 흰소리까지 했다.

그러나 가을이 되여 열성껏 일한 조합원들은 여러 대의 달구지에다 채가 휘도록 분배를 받아 가지고 돌아 갔지만 일을 도모지 얼마 나가지 않은 리 종인은 한 짐도 못되게 분배를 타 가지고 왔다. 남편이 분배를 타 온 것을 본 안해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였다.

《나를 뉘여 먹인다고 흰소리를 하더니 파연 흰소리를 할만 하구만요. 명년엔 뭘 먹고 살테에요? 누워서 발'바닥을 핥고 있을래요?》

마음 좋은 관리 위원장

×× 농업 협동 조합에 군에서 지도원이 내려 왔다. 관리 위원장은 부기원을 찾아 갔다.

《여보 군에서 오셨는데 어떻거겠소? 또 좀 내야겠소》

《거기에 쓸 돈이 이젠 없습니다.》

《공동 축적에서 좀 내란 말이요》

관리 위원장의 말이라 부기원은 공동 축적금에서 얼마큼 떼여 주었다.

(없어져야 내것 없어지겠니)

관리 위원장은 밤 늦도록 술'상을 벌려 놓았다. 그는 안주'감으로 닭을 세 마리나 없앴지만 자기 집 닭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접대 받는 사람에게는 자기 돈을 쓰는 듯이 보였다.

그는 자기 조합에 온 손님마다 조합 돈으로 모두 푸짐하게 대접해 보냈고 조합에서 새 농산물이 날 때는 학교 교장이며 병원 원장, 가축 병원 원장, 목장 지배인 등 부근의 간부들에게 조합의 농산물로 선물을 했다.

그때마다 관리 위원들은 꿍꿍거렸지만 관리 위원 장은 《그게 다 공은 아니요. 이 담에 그 대'가가 다 있을 테니까.》

정말 관리 위원장이 선심을 쓴 대'가가 있었다. 선물을 받은 집들에서는 관리 위원장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장 지배인으로부터는 선물에 대한 답례로 알 잘 낳는 암탉 한 마리를 관리 위원장네 집으로 보내여 왔고 농장 지배인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실어 보냈다. 그들은 관리 위원장의 것을 선물 받은 줄로 알고 그에게 답례를 한 것이다. 그것은 관리 위원장이 자기 것을 선물하는 듯이 했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그가 선심을 쓸 수 없게 되였다. 관리 위원장의 자리에서 쫓겨 났기 때문이였다. 이제는 아무에게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답례로 선물을 보내 오지도 않았다. 오직 조합원들로부터 욕을 선물로 받을 뿐이였다.

강 건너 불 보듯

평원군 남산리 남흥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 작년 10월 초에는 옥수수가 다섯 퉁구리 있었다.

그러나 그 퉁구리들은 눈비를 막기 위한 웃설비를 하지 않은채 내버려 둬서 눈비를 맞을대로 맞았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며 틈틈이 와 파 먹군 했다.

관리 일'군들은 아침 저녁 이것을 보고서도 《저걸 빨리 어떻게 해야겠는데》하고 생각만 할 뿐이고, 조합원들은 또 《관리 위원회에서 왜 곡식을 저렇게 둬 두나》하고 관리 위원들만 나무랄뿐 자기네들의 곡식이 못쓰게 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동안에 옥수수는 썩고 돼지가 파 먹고 해서 다섯 퉁구리던 옥수수가 두 달 후에는 겨우 세 퉁구리가 남았다.

리 운 봉

농사에 해로운 것들

홍 종호 그림

떼여 먹기 명수들

평양시에 주방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이름이 주방 공장이니만치 시민들의 부엌을 대신해 주는 공장이 틀림 없는데 김 형주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지도 일'군들은 자기네 부엌마냥 들어 앉아서 언제나 잘 잡수신다.

설기떡, 절편, 권모떡, 엿, 빵, 계란빵, 카스테라, 템부라, 두부, 콩나물 등등 이렇게 엮어만 나가도 흐더분한 데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해서인지 이 공장 살림살이는 날마다 흥성 풍성,

지배인 김 형주는 인사치레가 깍듯하신 분이여서 어데를 가실 때에는 의례'간 과자 한곽씩을 들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였고 공장 안에서는 지도 일'군들의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술까지 바쳐서 멋지게 차려지군 하는판에 생활은 점점 부화 방탕하여졌으니 그 많은 비용이 어데서 나왔겠는가?

이곳 지도 일'군들은 국가에서 제정한 규정대로 원재료를 넣지 않고 쌀, 콩, 기름, 계란 등등 요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의 눈을 속여 떼 내서 많은 격차를 쌓아 올려 놓아야만 마음이 놓였다.

△ 모가 없는 두부

주방 공장 두부는 모가 없다는 말을 식료품 상점 판매원이나 사가는 아주머니들은 흔히 말한다.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 틀을 채 뽑지도 않고 싹싹 칼'자리만 내 놓으니 사고 파는 동안에 모가 없어지고 둘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 모에 250 g가 보장되어야 할 두부 한 모가 180 g를 넘어 본 일이 별로 없으니 그 많은 콩과 서슬의 격차는 갈데 없이 평양 시민들한테서 뜯어낸 격차 리윤

△ 판매원을 울리는 떡

설기떡을 파는 판매원이 한 시루의 떡을 다 팔고 나면 의례'간 받은 것보다 중량이 늘상 모자라군 한다. 그래서 한동안 주방 공장 시루떡을 <판매원을 울리는 떡>이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으니 거기에는 그럴뜻한 리유가 있다. 규정에는 뜨끈 뜨끈할 때에는 응당 보아 주게 되여 있는 수분 감모를 눈을 감고 모르는척 했으니 떠올라 간 증기 값을 누구한테 받아 낸담, 그래서 어떤 판매원들은 사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작게 주기 시작했으니까——결국은 또 시민들에게서…

그밖에 또 원재료인 백미, 찹쌀, 록두, 참기름들을 규정된 분량을 다 쓰면 마치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 되여서인지 원재료는 규정보다 적게 넣고 떡 값은 떡 값대로 받았으니 떼여 먹고 남겨 먹고——

고쳐야 할 버릇

허 능택 그림

—신부름 좀 갔다 오너라
—갔다 오면 돈 주겠어요

—집 앞에 벼'짚 오라기를 걸어 주구려
—관리 위원장 동무 그러면 노력 점수는 얼마나 줄려우

△ 계란 빵

시내 식료품 상점들에서는 계란빵을 판다. 이 계란빵은 계란이 안들어간 것보다 값이 비싸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어린애들을 위해서 값이 곱절이나 되는 계란빵을 잘 산다.

그런데 한때 이 주방 공장 계란빵이 계란 없이 만들어졌으니 그래도 이름은 틀림 없는 계란빵.

사지도 않고 넣지도 않은 계란은 전표에만은 빠짐없이 있었으니 그 많은 계란은 부기원 손 태화가 혼자서 타마시고 그래도 흠 흠

△ 색갈 다른 홀레브

색갈이 누렇고 깔깔한 홀레브가 평양 시내 각 식료품 상점 매대에 오르게 되였던 것도 평양 시민들의 부엌인 주방 공장과 인연이 있다.

원래 정해진 규격대로 밀가루를 빼내여야 할터인데 그보다 더 많이 빼 냄으로써 밀'기울을 많이 섞이게 하고 그밖에 또 값 눅은 가루까지 섞어서 홀레브가 만들어졌으니 색갈이 까맣고 깔깔할 수 밖에 없는 일,

이처럼 여기서 저기서 떼낸 원재료의 격차로 홀레브 직장에 설치된 술 공장에서는 삭초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술을 걸렀으니 주방 공장 지도 일'군들은 사시장취 춘몽이였다고요.

염통 곪는 것도 모르고

평양시 연료 관리소 산하 각 동 상점들에는 주민들에게 탄을 공급할 때에 저울 대신에 쓰는 100 kg 궤짝이 있다.

이 궤짝을 가득 채우면 100 Kg 가 되는데 <접시의 밥도 담을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료 상점들 중에는 궤짝 롱간을 잘해서 탄을 떼 먹는곳도 적지 않다.

요사이에 와서는 적지않은 상점들에서 그렇게 탄을 떼 먹는게 보통으로 되여 있어서 탄을 사려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동구역 득매동 상점 김 용철은 몇해를 두고 점장을 하는 동안에 떼 먹는 기술이 능해져서 다량의 석탄을 떼 먹더니 요사이에 와서는 자기 집 옆에 새로 저탄팡까지 만들어 놓고 좋은 탄이 오며는 의례'간 그곳에 부리우게 함으로써 안팎 장사에 제법 기세를 올리고 계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시 관리소 부부기장 윤동실이나 산신 탄팡 출장원 손 봉익은 탄'데미 우에 올라 앉아 마음대로 탄'데미를 베서 팔아 먹기도 했다.

이처럼 동 상점들에서 적지않은 점장들이 협잡을 해 먹고 있고 날마다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직원들이 거액의 국가 재산을 략취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 관리소 책임 일'군들은 모르고 있다.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옛날부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야 다 알고 있지만 관리소 지도부에서야 모를 수도 있지않는가! 더욱이나 소장 동지나 부소장 동지는 본래 점잖으시고 하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여서 가끔 시민들이나 우리 활살에서 신호를 보낼 때면 <공연히 하부 일'군들을 의심해서 쓰나>하고 오히려 눈이고 귀고 다 막아 두는게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가끔 절기 따라 생일놀이, 술잔치, 야유회가 차려질 때에는 소장 동지도 부소장 동지도 다만 점잖게 술 좌석에만 섞이고 그 거액의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는척 하고 있다.

내나 안했으면 그만이지——나는 국가 재산이라고는 까딱 안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점잖만 빼고 앉아 있을 수 없게되지 않았는가?

김 상 애

아이들은 장난'감을 요구한다

원 광수 그림

경험에 의하여

—소금물과 간장을 섞기전에 따로 따로 살 수는 없을 가요?

송 용남 그림

일부 식료품 상점의 개별적 판매원 중에는 간장, 술등에 소금물이나 물을 타서 파는 사기 방법으로 탐오하는 자들이 있다.

수뇌자 회의 소집을 위한 쏘련의 일관된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미국 지배층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흉악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가리울 수 없다

미제—아직도 분위기가 어둡소!

식민지 해방 투쟁의 불'길 속에서

박 승히 그림

김 현 석

식민주의자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 없다.

류혈의 참극 연출로 소란한 심장에 고요가 깃들 수 없다. 협심증 환자의 얼굴 표정과 같이 이그러진 식민주의자들의 심중 자못 복잡하다.

그래 알제리아 전토를 군대로 매닥질 하다싶이 했는데도 식민주의 굴레는 찢어지게 되였단 말이지.

순라병이 행렬 짓듯한 도시 한 복판의 병영이 수류탄 세례를 받게 된 판국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파리 발 신화사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두비비에르 근방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불란서 침략군은 수많은 군용기를 동원하였으나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에 의하여 계속 커다란 손실을 당하고 있다.

새 증강을 위하여 알제리아로 출발하게 된 불란서 제 2 공병단의 전사, 하사관들이 알제리아에서 불란서의 섬멸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담을 개시하는 데 있다고 쓴 서한을 불란서 대통령에게 전하게 되였으니, 또 더 말해 무엇하랴.

공포는 초조를 낳고 초조는 광증을 낳는 바, 식민주의자들은 분풀이로 아무 죄 없는 알제리아 녀 대학생 세 명을 잡아다 갖은 고문 끝에 한명은 심신상태에 빠뜨렸으며 한명은 절명케 하고, 한명에게는 사형 언도를 하였다.

늙어빠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오늘날 죽엄의 망령과 한 침대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였다.

쎄느강은 만고의 흐름으로 불란서식 풍경 속에 녹아흐르고 파리의 엣펠탑과 개선문이 불란서 인민들의 자랑을 머금고 하늘 높이 솟구쳐 있건만 인민의 뜨거운 심장들파는 담을 싼 식민주의자들은 불란서를 멸방의 구렁텅이로 몰아 가고 있는 바, 2월 27일 유•엔 듀니샤 대표가 출판물 대표들에게 준 성명에서 폭로된 사실이 또 하나 죽어 가는 식민주의의 단말마적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류니샤 알제리아 국경에 《무인 지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알제리아인 25 만 명을 추방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파괴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에게 있어선 류니샤 인민들과 알제리아 인민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 조차 무서운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한 두 방의 대포' 소리를 울리고 칼든 몇 십명이 대륙에 뛰여 올라 대륙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가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으니 오늘에 와선 그 대륙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만 보아도 《우릴 잡으려는 의론이 아닌가?》고 공포에 떨게 되였다.

한편 다마스커스 국립 호텔 앞에 모인 군중들 앞에 2월 28 일 아침 출연한 아랍 련합 공화국 대통령 나쎄르는《아랍 련합 공화국은 제국주의와 그 앞자비들이 들어 있는 관에 박는 첫 못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주의자들이 들어 누어 있는 관에 박는 첫 못으로 되는 아랍 련합 공화국을 벌써 3월 1일 현재로 42 개국이 승인하였다. 이미 관 속에 들어 눕게 된 자가 첫 못 박는 쾅 소리에 사지를 더욱 빼치면 빼쳤지 관뚜개를 들고 일어날 힘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연이어 둘째 못 셋째 못이 쾅 쾅 내려 박아지고 있다.

3월 1일에는 영국 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치적 시위들이 영국 각지에서 단행되였다. 영국 주둔 미 전략 공군 사령부가 있는 런던 부근의 라이슬리프에서는 영국 인민들이 《미국 로케트 기지들을 설치하지 말라, 수소탄을 실은 폭격기들의 비행을 금지하라, 미군 기지들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미 공군 기지를 향하여 시위 행진하였다. 또 다른 한편 중앙 구라파에 비원자 지대를 설치할 데 대한 파란 제안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애급은 중근동에 비원자 지대를 설치할 데 대한 안을, 월남 민주 공화국은 아세아에 비원자 지대를 설치할 데 대한 안을 제기 하였다.

인류의 멸망을 구원하려는 이 제안들을 반대하는 자는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국제 제국주의 자들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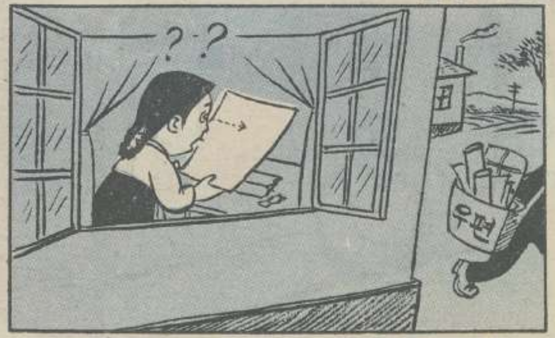
청명한 하늘에 봄'바람 타고 비둘기들이 에 날으도록 불소나기의 저주를 지닌 수소탄 실은 폭격기들이 비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 인류의 절절한 목소리에 놀랜 까마귀 소리로 까욱까욱 짖어대는 미 제국주의 자들에게 오직 울리나니 장송곡이다. 관에 박는 못소리에 화음하는 장송곡이다.

—이만하면 내 심정을 알아 주겠지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에서 생산한 <광명 잉크>는 글씨를 쓰고서 며칠 지나면 곧 변색한다

이상한 일

원 광수 그림



—백지를 받은 나의 심정은 어이하리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쇄 1958. 4. 10 ㄱ—72720
발행 1958. 4. 15 값(50원)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구실이 있다면 어디 말해 보시오

리 영춘 그림